전남대학교병원 해외 의료봉사단

방글라데시서 14명 언청이 수술

전남대학교병원 제 12차 해외 의료봉사단(단장 오희균 교수,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이 지난 1월 22일~29일까지 방글라데시에서 14명의 언청이 수술〈사진〉과 1천400여명 진료 등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오희균 교수(구강악안면외과)를 단장으로 한 30여명의 봉사단원들은 23일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지난해에 이어 한인 교포들에게 무료로 초음파검사, 스켈링을 포함해 의과와 치과 치료로 큰 호응을 얻었다.

박석범 주 방글라데시 대사는 다년간 봉사팀을 이끌고 방글라데시 체류교민과 방글라데시인들에게 무료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방글라데시 양국 간 우의 증진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오희균 교수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오희균, 박홍주 교수를 포함한 언청이(구순구개열) 수술팀은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인 의사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FOB 기독병원에서 10명의 언청이 환자를 수술을, 26일에는 꼴람똘라 기독병원에서 4명의 언청이 수술을 무료로 시행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코털 함부로 뽑지 마세요

모공 상처 세균 감염 위험

나이가 들면서 코 밖으로 나오는 코털을 보기 싫다고 뽑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털을 뽑아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세균 감염의 위험 때문이다.

코 속에는 손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고, 코털은 피부에 깊숙이 박혀 있으며 모공도 크다. 코털을 습관적으로 뽑을 경우 모공에 생긴 상처가 덧나 그 안으로 세균이 들어가 심각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염증이 생기면 코와 주변이 부을 뿐 아니라 염증 물질이 뇌로 들어가면 뇌막염이나 패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코털은 공기 중의 먼지나 세균 등 불순물이 호흡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두 제거해서는 안된다. 보기 흉하게 나온 부분만 자르는 것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채희종기자 chae@

光州日報·전남대병원 공동 주최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 강좌 ——— 류마티스 질환에 대하여

입안 상처 1주일 이상 지속땐 의심을

류마티스 질환이란 관절 및 근육골격계에 이상을 초래하는 모든 질환을 총칭하는 말로 관절통이나 관절염을 일으킨다는 면에서 류마티스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같은 병이라고 혼동하는 이들이 많지만, 두 가지 질환은 엄연히 다른 병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체계이상으로 인해 관절이 파괴되는 질환이고, 류마티스 질환은 관절, 인대, 근육 등 근골격계 전반에 발생하는 질환 모두를 말한다다.

관절·인대·근육 등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

조기 발견땐 운동·약물 치료로 완치 가능

전남대병원 강당에서 최근 열린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 강좌'에서 김태종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대표적인 증상들

▲관절통=관절 증상은 대표적인 류마티스 증상이다. 관절은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다. 우리 몸의 손가락 마디, 손목, 팔꿈치, 어깨, 무릎, 발목, 발가락 마디 등이 주요 관절 부위에 해당된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관절염이라고 한다. 관절염이 생기면 위의 관절 부위가 붓거나 벌겋게 되고, 관절 부위에 열이 나기도 하며, 관절이 굳어져서 움직이기 힘들게 된다. 관절염이 목관절이나 턱관절에 생기기도 한다.

▲요통 및 척추 경직=우리 몸의 등을 위 아래로 가로지르는 척추(등뼈) 역시 수많은 관절로 연결돼 있다. 강직성 척추염이나 건선 관절염, 라이터 증후군 등 일부 관절염은 척추 관절을 침범해 요통을 일으킨다. 이 경우 요통이나 척추 경직은 아침에 일어날 때와 오랜 시간 자세를 움직이지 않았을 때 심해지고, 운동을 하면 좋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구강 궤양=입 안이나 목 안, 혹은 혀에 생기는 궤양도 류마티스 질환의 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궤양은 점막이 파이면서 생기는 병변을 말한다. 겉에서 보면 조그맣고 동그란 모양으로 하얗거나 노르스름한 빛을 띤다. 통증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보통 사람에서도 가끔 입 안 궤양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궤양이 1주일 이상 오래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여러 개 생기는 경우, 입 안 외의 성기 부위에도 생기는 경우는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피부 발진=얼굴이나 몸에 생기는 여러 모양의 피부 발진이 류마티스 질환과 관계된 것일 수 있다. 피부 아래 망울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다(이것을 피하결절이라고 한다). 광과민성이란 피부 발진이 햇빛을 받아 생기거나 심해지는 것을 말하며, 이것 역시 류마티스 질환의 한 증상이다. 이 외에도 류마티스 질환에서는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손톱이나 발톱에 오기도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와 같은 증상이 생기거나 만성적으로 지속될 때, 혹은 관절 증상과 함께 생긴다면 류마티스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레이노 현상=추위에 노출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손이나 발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붉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통증이나 저린 증상, 무감각증이 함께 오기도 한다. 루푸스나 경피증과 같은 류마티스 질환에서 종종 생기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에 작은 궤양이나 괴사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점막 건조증=입 안 및 눈 건조증이란 말 그대로 눈이나 입이 마르는 증상을 말한다. 심하면 눈에 모래알이 낀 것 같고, 입에서는 충치가 잘 생긴다. 이는 병리학적으로 침샘이나 눈물샘이 파괴돼 침과 눈물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류마티스 질환에 동반해 생기기도 하고, 다른 류마티스 질환 없이 생기기도 한다.

▲기타 증상들=그 외 류마티스 질환과 동반해 눈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안과에서 포도막염이나 홍채염, 망막 혈관염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면, 그리고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반복된다면 류마티스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반복적인 자연 유산의 산부인과적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류마티스 질환이 그것의 원인일 수 있다.

위 증상 외에 류마티스 질환은 전신 쇠약감이나 전신 통증, 원인 모를 발열 및 체중 감소, 피로감과 같은 전신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힘이 떨어지는 쇠약감은 관절통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피부근염/다발성 근염 같은 근육 질환에서도 올 수 있다. 이 경우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이 들 수 있다. 온 몸이 아픈 전신 통증이나 몸의 이곳, 저곳이 아픈 증상은 관절염이나 루푸스, 다발성 근염, 섬유근통의 증상일 수 있다.

◇반복 증상에 주의

위와 같은 류마티스 증상은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고 수 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대부분의 증상들은 자연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진행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류마티스 질환은 종종 진단이 어렵고, 환자들은 의사를 늦게 찾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증상들이 1주 이상 지속하거나 만성적으로 반복된다면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류마티스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관절 증상이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류마티스 질환은 관절 외에도 근육, 혈관, 피부, 눈, 심장, 신장, 폐, 뇌 등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일 때는 류마티스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류마티스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운동,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통해 완치에 가까운 치료가 가능하다. 〈김태종 전남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